

## ◆ 북미

- 컨설팅 업체 Ernst & Young, 2008년 손해보험산업 전망
- 미국 보험사기방지협회, 2007년 보험사기 사례 발표

## ◆ 유럽

- 영국, 가정종합보험의 보험료 인상
- 영국 보험회사들의 2007년 4/4분기 전략적 주요 특징
- MCCIP, 날씨변화가 영국의 해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표

## ◆ 일본

- AFLAC, 고급 암 의료행위에 의한 보장상품 출시
- 일본 부자 90%가 안정성 중시한 중장기 투자 선호
- 금융청, 금융기관에 대한 서브 프라임 관련 손익현황 조사

## ◆ 중국

- 중국, 보험회사자금 해외투자비율 확대 예상
- 중국핑안보험, 포티스그룹 지분매각으로 4억 유로 투자손실
- 금년 중국보험회사 자산규모 25% 성장 예상

##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컨설팅 업체 Ernst & Young, 2008년 손해보험산업 전망

- 컨설팅 업체 Ernst & Young은 수익감소 위험과 보험료 하락 등의 요인이 2008년 보험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Ernst & Young의 애널리스트인 Peter R. Porrino는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에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또한 오늘날의 경영자는 가격경쟁에 잘 대처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의 발굴에 힘써야 하며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리스크 관리 체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Ernst & Young Global Insurance Center는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대안적 성장전략 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Ernst & Young은 2008년 손해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6가지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1) 성장을 위한 노력 :
    - 과거에는 고수익을 거두었으나 2008년은 그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향후 12개월간 수익성 제고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건실한 재무상태와 자본금 증가 등은 자사주 매입, 배당금 증액 등을 가능케 할 것이며 신형시장 진출과 M&A활동을 촉진하여 통합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임.
  - (2) 경영전략의 수정 :
    -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은 보험사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비용관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임.

- 2008년 보험사들은 비영업부문 및 고객응대부문에서 아웃소싱과 해외 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전략적 비용관리 프로그램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재해 대책 :

- 연성시장의 도래는 보험사들이 엄격한 언더라이팅 규칙을 유지하여 적절한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임.
- Ernst & Young은 보험사들이 대재해 리스크를 이해하고 언더라이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믿고 있음.
- 자원, 기술, 운용능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임.

(4) 재무위험 대비 :

- 지난 5년간 보험사들은 신용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음.
- 그러나 지금은 리스크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투자행태에 걸맞는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시점임.
- 자산의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만이 앞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5) Solvency II :

- Solvency II의 실행은 많은 측면에서 상당한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시스템과 프로세스, 데이터 등에 있어서의 개선은 차치하더라도 회계, 리스크 관리, 계리정보 등에서의 집중화(convergence)는 전통적 계리업무 수행자들이 보다 정교한 재무, 리스크 관리기법과 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기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임.

(6) 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의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험사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 변화가 그들의 재무제표에 가져올 충격을 측정하고 주요 임원과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임.

*(Insurance Journal, 1/23)*

## □ 미국 보험사기방지협회, 2007년 보험사기 사례 발표

- 미국 보험사기방지협회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는 2007년 보험사기 범죄자들 중 6명을 선정하여 사례를 발표함.
  - 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연간 800억달러에 달하며, 올해 선정된 6명의 사례는 보험사기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다고 밝힘.
  
- 아래는 보험사기방지협회가 선정한 6명의 사례임.
  - Timothy Nicholls : 그는 증가하는 빛 때문에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세 명의 자식을 살해하였음. 그는 자신에게 각성제를 공급하던 갱들에게 빛을 지고 있었으며 이번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음.
  - Ronald Evano : 집사인 Evano는 유리조각을 삼킨 후 그가 구입한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음. 그는 징역 63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34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함.
  - Christopher Michael Robertson : 플로리다의 Robertson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의 집에 방화를 저질렀으며 이를 은폐하기위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이들이 저지른 증오범죄라고 주장함.
  - Candice Lambert : 학교 선생님인 Lambert는 말기암 환자인 것처럼 속여 학교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냈으며 다른 곳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던 중 지역신문에 그녀의 기사가 실리면서 범죄행위가 들통나게 됨.
  - Robert D. Wachter : Wachter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환자들의 Medicare, Medicaid 급부를 횡령하였고 환자들에게는 먹을 것조차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다가 적발됨.
  - Richard James : 아프리카 출신 보험설계사인 James는 뉴욕의 가난한 아프리카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부랑아들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시킨 뒤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름. 4명의 부랑아를 살해하고 얻은 보험금은 100만달러에 이룸.

(Insurance Journal, 1/22)

##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 영국, 가정종합보험의 보험료 인상

- 영국 AA보험사가 제시한 새로운 보험요율은 지난 여름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인해 가정종합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10여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주택의 건물담보에 대한 연평균보험료는 218.6 파운드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볼 때 1.4% 가량 상승하였는데, 동 수치는 AA보험사가 1994년 이후 영국 보험요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내 동산담보에 대한 연평균보험료는 150.57파운드로 0.4% 이상 인상되었음.
- 이러한 보험료의 인상은 영국에서 6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인해 14,500가구의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7억 5천 파운드에 달한 재물성 클레임에서 비롯됨.
  - AA사의 관계자는 이러한 클레임의 평균 비용은 약 52,000 파운드에 육박하였으며, 건물담보 보험료는 요율표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한편, 영국정부는 신규건물 건축시 홍수와 폭풍에 잘 견딜수 있도록 설계할 의무조항을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Reuters, 1/18)

## □ 영국 보험회사들의 2007년 4/4분기 전략적 주요 특징

- 영국 보험회사들의 2007년 4/4분기 전략적 특징 중 눈에 띄는 트렌드는 보험회사들의 브로커 전략에서의 더 큰 발전으로 요약되며,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 Cornhill Direct사는 가격비교사이트인 Confused.com과의 제휴에 동의함으로써 소비자가 Confused.com을 통해 Cornhill Direct사의 가정종합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됨.
- Allianz Schemes사는 다수의 신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음.
  - Amazon사와의 제휴를 통해 Amazon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품질보증 및 파손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게 되며, 소매업체 GAME사와도 특정제품 구입시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제휴를 확대함.
- AXA사는 건강보험 브로커 시장에 진입하였음.
  - 동사의 자회사 Venture Preference는 THIG(The Health Insurance Group)라는 원수보험료 규모 4,500만 프랑의 건강보험중개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동 인수를 통해 AXA사는 총 원수보험료 5억 프랑 창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게 됨.
- 한편, Groupama사의 CEO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Lark and Bollington이라는 브로커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수익원 다양화를 목적으로 독립 브로커사를 운용할 것이라는 AXA사의 전략과는 상반되는 것임.
- Norwich Union사는 HSBC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5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Direct Line사는 기업성 재물담보 상품을 출시하였음.
- 그 외에도, Towergate사의 Broker Network사 인수 등 브로커사들의 통합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음.

(Datamonitor, 1/16)

## □ MCCIP, 날씨변화가 영국의 해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표

- MCCIP(Marine Climate Change Impacts Partnership)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날씨변화는 영국에서의 해상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2005년 3월에 설립된 MCCIP는 과학자, 정부기관 및 비정부조직(NGO)간의 연합체로, 영국을 둘러싼 해상 날씨변화를 파악하고 견해를 교류하는 등 장기적인 연구의 실천이 동 기구의 설립 목적임.
- 최근 출간된 보고서 “날씨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영국의 해상환경과 미래 예측”에 따르면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06년은 1870년 집계 이후 영국 해수면의 온도가 2번째로 높았던 한 해였으며, 상위 10년의 최고 수온 중 7개년이 최근 10년 내에 몰려있음.
  - 온난한 겨울은 몇몇 해조(海鳥)류 수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
  - 예측 모형에 따르면 향후 태풍의 빈도는 감소하겠으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 해상 날씨변화는 해상환경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해식(海蝕)은 영국 해안의 17%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 비중은 잉글랜드 지방 30%, 웨일즈 지방 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홍수와 함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온난화는 플랑크톤 증가, 어류 감소, 해조(海鳥)의 감소를 초래함.
  - 해수면의 상승, 연안의 범람, 태풍 및 높은 파고는 항만, 선박, 건축구조물 등 기업성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 및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Insurancenewsnet, 1/17)

##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 AFLAC, 고급 암 의료행위에 의한 보장상품 출시

- 일본에서 영업 중인 AFLAC은 23일 지난해 판매한 ‘암보험 포르테’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공적 의료보험에서 보장할 수 없는 고급 선진형 의료에 대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보험을 개발하였으며 1월 28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함.
- 동 상품은 후생노동성이 인정하고 있는 125종의 고급 선진형 의료에 의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형 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음.
  - 실손형 지급은 손해보험의 기본 이론이지만 이에 따라 고액의 자기부담이 필요한 고급 선진형 의료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암 치료 방법에 따라 130만~320만엔의 지급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고급 의료에 의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일률적으로 15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함.
  - 고급 의료는 원격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많아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일시금의 지급은 연 1회를 상한으로 함.
- 또한, 동 회사의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 대해 이러한 보장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용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신규로 암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 1/24)

## □ 일본 부자 90%가 안정성 중시한 중장기 투자 선호

- ING가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 부유층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투자전략을 조사한 결과, 일본지역 투자자심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지역 투자자심리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일본,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13개국에서 작년 11월 19일~25일에 실시된 동 조사는 30세 이상,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 또는 유동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1,311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투자전략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로 장기간 자금확보를 중시한다’ 또는 ‘분산 투자로 중장기적인 성장과 안정된 회수를 중시한다’라고 답한 투자자 비중이 일본은 약 88%에 이르렀으며, 한국과 호주도 80%를 넘었지만 홍콩과 태국은 67%, 중국은 72%로 낮게 나타남.
- 이에 대해 ING의 조사담당 임원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자에 비해 일본의 투자자심리는 상당히 신중하고, 안정되며 밸런스가 잡힌 중장기적 투자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함.
- 향후 3개월 이내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일본 투자자의 17%가 ‘일본 국내주식 투자액을 줄인다’라고 답하였으며, 26%가 ‘현·예금을 늘린다’라고 답함.
- 일본 투자자는 투자포트폴리오에서 현·예금의 비중이 약 40%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레버리지(leverage)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9%에 지나지 않음. ING는 이러한 투자성향에 비추어 볼 때 ‘일본 투자자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안정된 자산운용을 선호한다’라고 분석함.
- 다만, 일본 투자자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투자의 경험이 있거나, 해외투자를 검토 중인 투자자 중 36%가 ‘향후 3개월 안에 중국에 투자한다’라고 답하였으며, 36%가 ‘인도에 투자한다’라고 답함.

(Reuters Tokyo 1/24)

## □ 금융청, 금융기관에 대한 서브 프라임 관련 손익현황 조사

- 일본 금융청은 24일부터 일본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화 상품의 보유액과 최근 손익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방은행과 제2지방은행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작년 가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조사 대상에 증권화 상품 관련조사도 포함시켰는데, 증권화 상품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 확대에 일본 내에 영향을 파급하여 대비하기 위함임.
- 금융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청은 이례적이지만 4분기 결산 보고 시 증권화 상품 관련 조사를 나설 방침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입장임.
- 서브 프라임 문제와 관련한 증권화 상품의 실태 파악은 작년 10월경부터 해 왔으나,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 론이나 금리 연동형 채권 등에도 확대하여 작년 12월말 시점의 보유액과 평가액, 손익현황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지방은행이나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등에는 최근의 추가하락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금융청은 작년 여름 이후 은행 등의 서브 프라임 관련 상품 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약 1조 4,100억엔이 관련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 평가 및 미평가 손실액은 약 2,700억엔으로 나타나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에 비하면 손실이 작지만, 그 이후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 1/25)

##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중국, 보험회사자금 해외투자비율 확대 예상

- 중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 보감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회사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정책조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감위는 현행 보험회사 자산의 해외투자 정책조정 방안을 예로 들면서, 원칙적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완화하고, 보험회사 자산의 해외투자 비율과 투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보감위의 정책조정 계획은, 지난 2007년 말 중국 보험업계 자산총액이 3조 위안을 넘어서고 국내외 투자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면서 보험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투자대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보감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투자 비율을 기존의 일괄 적용 방식에서 선별적용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임.
- 즉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산의 해외투자 비율을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되, 과거 해외투자 실적이 양호한 보험회사에 우선적으로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임.
-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투자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홍콩으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 유럽 등 선진 자본시장 투자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에 있어서도 주식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권보유도 가능한 허용한다는 방침임.

(중국증권망, 1/23)

## □ 중국핑안보험, 포티스그룹 지분매각으로 4억 유로 투자손실

- 중국 내 2위 보험그룹인 중국핑안(中國平安)이 벨기에 포티스그룹에 투자했던 주식을 매각하면서 4.2억 유로의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핑안보험의 해외투자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핑안보험은 지난해 11월 29일 공고를 통해, 자회사인 핑안생명(平安人壽)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포티스그룹 주식 9,501만 주(전체 발행 주식의 4.18%)를 매입하면서 포티스그룹의 1대 주주로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 당시 핑안생명은 18.1억 유로를 투입하여 주당 평균 19.05유로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1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핑안생명은 포티스그룹 주식을 주당 14.62 유로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핑안생명의 투자손실이 적어도 약 4.2억 유로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이에 대해 중국핑안 측은 지난해 11월 핑안생명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포티스그룹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상태에 있었고, 업무적으로도 핑안과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함.
- 핑안그룹 최고책임자 마밍저(馬明哲)는 포티스그룹 주식 매입 당시 "포티스그룹과 핑안그룹은 업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핑안그룹은 포티스그룹으로부터 교차판매, 리스크관리, 상품설계 등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당시 포티스그룹 주식매입 소식에 힘입어 발표 당일 핑안그룹 주식은 7.46% 상승으로 마감했으나, 투자손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 지난 23일 핑안보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함.

(제일재경일보, 1/25)

## □ 금년 중국보험회사 자산규모 25% 성장 예상

- 광따증권(光大證券)이 최근 발표한 '2008년 보험업종 최신 투자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국 내 보험회사의 자산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보고서는 그 근거로 1)신규 수입보험료로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2)주식자산재평가로 지난해 주가상승 부분이 반영되며, 3)주식시장을 통한 신주발행 등의 방법으로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중국 보험업계는 지난해 대비 약 25%의 자산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우선 지난 2007년의 주민소득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통해 집적된 부의 효과가 2008년 수입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수입보험료 증가는 지난해 대비 최소 25% 이상이 예상되고 있음.
  - 기존에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처분가능 자산은 현재시점에 매각하더라도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자산증가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순이익을 대부분 기존주주에 배당함으로써 자본증자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 보감위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중국 보험업계 자산 총액은 3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보험업계가 거두어들이는 수입보험료는 약 7,000억 위안에 이르고,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6,00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남방도시보, 1/22)

##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1.11(금)	08.1.18(금)	08.1.25(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52	5.36	5.19	-0.17
	美 10년국채	4.03	3.79	3.63	3.56	-0.07
	英 10년국채	4.51	4.42	4.44	4.53	+0.09
	日 10년국채	1.51	1.43	1.40	1.48	+0.08
주가	韓 KOSPI	1,897.13	1,782.27	1,734.72	1,692.41	-2.44%
	韓 KOSDAQ	704.23	699.24	666.32	653.78	-1.88%
	美 DJIA	13,264.82	12,606.30	12,099.30	12,207.17	+0.89%
	美 Nasdaq	2,652.28	2,439.94	2,340.02	2,326.20	-0.59%
	英 FTSE	6,456.90	6,202.00	5,944.40	5,869.00	-1.27%
	獨 DAX	8,067.32	7,717.95	7,401.63	6,816.74	-7.90%
	佛 CAC40	5,614.08	5,371.41	5,092.40	4,878.12	-4.21%
	日 Nikkei225	15,307.78	14,110.79	13,861.29	13,629.16	-1.67%
	中 상해종합	5,261.56	5,484.68	5,180.51	4,761.69	-8.08%
	대만 가권	8,506.28	8,029.31	8,184.65	7,739.59	-5.44%
	홍콩항셍	27,812.65	26,867.01	25,201.87	25,122.37	-0.32%
환율	원/달러	938.20	935.60	945.00	949.60	+4.60
	원/100엔	833.33	853.92	887.41	886.23	-1.18
	엔/달러	112.58	109.56	106.49	107.15	+0.66
	달러/유로	1.4722	1.4797	1.4644	1.4762	+0.0118
	위안/달러	7.3041	7.2714	7.2486	7.2230	-0.0256